

시문 수창을 통해 본 騎牛子 李行의 삶과 문학

金龍泰*

- | | |
|-------------------------|---------------------------|
| I. 기우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IV. 孝의 바탕-出과 處를 아우르는 삶의 길 |
| II. 出의 지향-민생의 안정에 대한 회구 | V. 맺음말 |
| III. 處의 지향-物我無間의 정신경계 | |

• 국문초록

여말선초 문학사를 기술할 때 기본 구도가 되는 ‘절의파’와 ‘역성혁명파’의 대비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며 이는 조선전기 문학사의 ‘사림파’와 ‘관각파’의 구도로도 연결된다. 그런데 이 구도는 사대부들의 ‘隱居’와 ‘出仕’를 너무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절의’와 ‘혁명’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모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기우자 이행과 같은 중요한 인물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주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우자는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매사 소신에 따라 처신했다는 점에 그의 특별한 점이 있다. 기우자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개혁을 위해 혁명파와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노선을 걸었다. 역성혁명에는 반대하여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켰지만, 태종이 즉위한 이후 고려의 충신들이 대거 등용될 때 그도 조선왕조에 출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물러날 때라고 판단되면 즉시 물러나는 처신을 보였다. 그의 삶은 사대부로서 세상에 대한 책무도 온전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삶도 잘 지켜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우자의 삶은 ‘處士’와 ‘大夫’ 두 측면을 적절히 아울러야 하는 ‘사대부’ 본연의 존재 조건을 충실히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시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문학을 ‘출’과 ‘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거의 삶이 그의 출사에 도움을 주고, 반대로 출사가 그의 은거에 도움을 주는 상호 보완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출’과 ‘처’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의 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여말선초 문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사대부 일반의 사상과 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단초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우자, 이행, 여말선초, 절의파, 혁명파, 성석린

I. 기우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¹⁾

여말선초 시기에 고려왕조에 대해 節義를 지켰던 鄭夢周(1337~1392)와 吉再(1353~1419)는 국민 교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역사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조선왕조로부터도 극진한 추앙을 받았으며, 오늘날의 역사 교육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조선왕조가 이들을 현창하였던 것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하였던 이들의 삶이 후인들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몽주와 길재와는 정반대로 역성혁명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는 단연 鄭道傳(1342~1398)의 경우가 국민 교양이라 할 수 있다.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의 충신들을 제거하며 조선을 세웠으나 자신의 포부를 다 펴기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의 삶은 오늘날 종종 역사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며 우리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정몽주와 정도전의 ‘대립 구도’는 시민들이 여말선초의 역사를 이해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선전기 문학사의 서술도 ‘사림파(정몽주의 후예)’와 ‘관각파(정도전의 후예)’의 대립 구도에 기대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고 유효한 역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구도에 가려 우리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측면도 생겨났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하게도 당시 역사의 갈림길에 ‘절의’와 ‘혁명’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신진사대부라는 존재 자체가 절의와 혁명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1)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주관한 〈기우자 이행 선생 학술발표회-고려유신으로 기우자 선생이 겪은 생애와 절의〉(2019.10.18)에서 발표한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기우자에 대한 단독 학술회의로는 처음 열린 행사였다. 본고는 기우자의 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우자의 문학에 대한 像을 세우기 위해 다소 과감한 입론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투고 이후 심사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기우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목은 이색으로부터 영향 받은 문인들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고, ‘孝’를 ‘出’과 ‘處’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 것은 연결 고리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모두 적실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상 심사의견을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바, 후고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것도 아니다. 절의와 혁명의 대립이라는 역사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절의와 혁명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인간과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방해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騎牛子 李行(1352~1432)과 같은 인물이 시민들에게 전혀 낯선 인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이러한 대립 구도에 의해 생겨난 사각지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우자는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변혁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조선왕조에 힘을 보태는 길을 걸었다.²⁾ 기우자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개혁을 위해 혁명파와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노선을 걷다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고려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외교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啓稟使라는 조선의 직책을 받들고 홀연 명나라 사신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처신을 보였다. 기우자는 특정 당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우자의 삶은 ‘절의’와 ‘혁명’에만 묶여 있던 우리의 경직된 시야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이 있다. 특히 오늘날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우자의 행적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길재의 ‘절의’는 아무래도 중세적 가치의 자장에 놓여있지만 기우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못했던 점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평가와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기우자라는 역사 인물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다행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우자가 이렇게 독특한 역사적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문제를 ‘出과 處의 적절한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³⁾ 모름지기 士大夫라고 하면 ‘讀書者’ 곧 處士의 삶과 ‘從政者’ 곧 出仕의

2) 기우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운성, 「제7장 기우자 선생의 생애와 풍절」, 『이천 리의 역정과 천년의 선적·여주이씨 사인당리중사』, 푸른사상, 2017 참조. 이밖에 기우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정자, 「기우자 李行의 생애와 학풍」, 『역사와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김도형, 「여말선초 李行의 정치활동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세계』 31, 효원사학회, 2007; 정성식, 「기우자 李行의 경세사상」, 『동양문화연구』 23,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6 참조.

3) 사대부들의 문학을 출과 처의 개념에 의해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국문학의 체계를 세운

삶을 모두 아울러야 마땅하다. 이 두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다면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출사하여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는 관인이라 하더라도 마당에 작게나마 동산을 꾸며 은자의 삶을 재현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臥遊를 통해서라도 삶의 균형을 도모했다. 그리고 처사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致君澤民’의 이상을 품고 있기에 經世濟民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가다듬거나 심성을 도야하였다. 만약 대부가 정치에 매몰되어 물러날 줄 모르거나 처사가 단지 일신의 초탈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양편 모두 사대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사대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각기 여러 요인에 의해 ‘출’과 ‘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본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머지 한쪽은 그저 허울만 남기 마련이다. 처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사사로운 욕망이나 맹목적 아집 또는 당파적 이해가 작동하게 되면 出과 處의 균형은 깨지게 되고 결국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기우자의 경우는 처사로서의 삶과 대부로서의 삶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의 ‘은거’는 ‘출사’의 바탕이 되고 그의 ‘출사’는 ‘은거’의 바탕이 되어 상호 보충하는 관계였기에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의 다양한 국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자는 것이다.

陶南 趙潤濟의 『國文學史』(1949)에서 비롯되었다(제6장 제5절 “道學波와 詞章派의 分立”). 이 학설을 계승한 임형택이 『韓國文學史의 時角』(1984)에서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을 바라보는 기본 틀로 제시한 이후 학계의 통설이 되었다. 최근에 고려말 조선초의 문학사를 출처의 관점에서 분석한 성과로는 김남이, 「전환기의 관점에서 본여말선초 사대부의 세계관과 문학론의 전개」, 『고전과해석』 3,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하정승, 「고려 후기 한시에 나타난 사대부 문인들의 현실 참여의식과 내적 갈등-목은 이색을 중심으로 포은 도은 삼봉의 경우」, 『동방한문학』 68, 동방한문학회, 2016 참조. 고려 후기 한시 문학이 나올 수 있었던 시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유호진, 「高麗 後期 士大夫 漢詩에 나타난 精神志向에 대한 연구-崔滋·安軸·李齊賢의 詩文을 中心으로」,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참고. 고려말과 조선초의 한시사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승룡, 「여말선초 시학사의 구도를 위하여-방법으로서의 典故」,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화회, 2017 참조.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역성혁명에는 반대하였지만 나중에 조선왕조에 출사한 인물들을 ‘비개국파 유신’이라는 용어로 범주화하지는 견해가 제출되었지만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지는 못하였다. ‘비개국파 유신’에 대해서는 류주희, 「조선초 비개국파 유신의 정치적 동향」,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참조.

필자가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기우자 벋들의 언급 때문이었다.

도인이 저자에 숨어 살면서
 갈림길 곁에다 집을 지었네.
 동산엔 아름다운 화초가 있고
 집 아래선 서늘한 샘이 솟아라.
 문을 닫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이들의 시끄러움 달갑게 듣네.
 道人隱城市 卜築岐路邊.
 園中有嘉卉 屋下生冷泉.
 閉門自怡悅 甘受兒童喧.

 고개 돌려 인간 세상 한탄하며
 세월이 저 달아나는 내와 같다 하네.
 아스라이 소 타던 곳 생각하노니
 밝은 달이 바다 독에 가득했었지.
 호쾌하게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노래 부르니
 출처가 이에 온전해지네.⁴⁾
 回頭歎人世 逝者如奔川.
 遙思騎牛地 明月滿海壖.
 浩然賦式微 出處斯萬全.

이 시는 權近이 지은 「차운하여 기우도인에게 드리다[次韻贈騎牛道人]」이다. 여기에는 “李周道가 일찍이 관동에 노닐면서 매양 달밤에 소를 탔다. 自號를 一可道人이라 했다.”는 주석이 달려있으므로 이 시가 지어질 때 기우자는 강원도 바닷가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지내던 때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때 기우자는 ‘出’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처소는 번다한 갈림길에 자리하고 있었어도 ‘處’의 품모

4) 權近, 『陽村集』 卷2, 「次韻送騎牛道人(自註 李周道嘗遊關東 每月夜騎牛 自號一可道人)」, 〈고전번역DB〉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발표자가 임의로 수정을 가하였음. 이 작품 외에도 〈고전번역DB〉에 번역이 실린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였음.

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권근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감지하며 기우자는 다시 홀연 바닷가로 떠나갔다. “出處斯萬全”이라는 구절에는 출과 처에 있어 적절하고도 단호하게 처신하는 기우자에 대한 감탄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또 成石璘(1338~1423)은 「기우자의 시를 보니 조정의 아름다움을 크게 칭송하면서 아울러 시골의 사사로움에도 그렸다. 노생이 그 비루하고 졸렬함을 잊고서 경성과 향곡의 두 수를 짓고서 크게 웃음을 터뜨리노라[騎牛子詩 盛稱朝廷之美 并及鄉曲之私 老生忘其鄙拙 作京城樂 鄉曲樂 二首 以發大笑]」(成石璘, 『獨谷集』 卷上)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바가 있다. 성석린은 보았다는 기우자의 시가 전하지는 않지만 ‘조정’과 ‘향곡’을 병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인 한시의 전통에 따르면 궁중을 노래하는 갈래로는 ‘궁사’가 있고, 향촌을 노래하는 갈래로는 죽지사 등의 악부고시 갈래가 있지만 이 둘을 함께 노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를 지었다는 점도 기우자의 출과 처에 대한 균형감이 표출된 사례로 보고 싶다.

성석린은 또한 「보내온 시를 세 번 반복해서 보니 시원하게 묵은 병이 몸을 떠나고 마음속의 비루함도 또한 녹아 사라졌다. 읊고 감탄하는 나머지에 한 수를 화답하여 기우선생에게 삼가 올리다[三復來詩 灑然沈疴去體 而心上鄙吝 又復消盡了也 詠歎之餘 復和一首 奉呈騎牛先生]」(『獨谷集』 卷上)라는 제목의 시를 짓기도 했다. 여기서도 성석린이 감탄하였다는 기우자의 시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 시가 지녔을 感染力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기우자의 활달하고 건강한 삶에서 우리나라의 시문은 벗들에게 상당한 청량감을 선사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은가 싶다.

이와 같은 벗들의 증언은 실제 기우자의 삶과 일정하게 조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당한 사실의 반영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출과 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기우자의 삶과 문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에 전하는 기우자의 시문이 워낙 영성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기우자 시문학의 본령을 탐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우자가 벗들과 주고받은 시편들을 중심으로 기우자의 출처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대부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아울러 나말여초의 문학사를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出의 지향-민생의 안정에 대한 희구

『騎牛集』의 내용이 워낙 소략하긴 하지만, 경세가로서 기우자의 사상과 경륜을 살펴보려면 아쉬우나마 「諫添設官職疏」, 「田制疏」 등의 글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문을 통해서도 경세에 대한 기우자의 생각과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청하라는 고을은
궁벽하게 동해 가에 있지만
농토며 호구가
부산이나 창원보다 못하지 않거늘
한번 왜구가 창궐한 이후로
고단하고 쇠퇴함이 날로 심해져
마을이며 언덕이
오래도록 사슴 세상 되어버렸네.
고을 수령이 읍성을 쌓고
만호가 부절과 인장을 지니고서
배를 만들어 개포에 정박시키니
물과 물으로 군의 위엄이 서고
유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밭 갈고 우물 파서 일상을 안정시켰네.
민 사포는 나의 벗
정사를 돌본 지 이년 남짓에
충심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개연히 의창을 복구하고
또 그다음에는 관아 건물을 세워
차차 관청이 갖추어졌네.
빈객들도 침식이 편안하고
아전과 백성들도 기근을 면했네.
예로부터 수령의 직분이란
다만 이것일 뿐 다른 방도 없다네.
清河之爲縣 僻在滄海傍.

田疇與戶口	蓋不下富昌.
一自倭竊發	喪耗日相將.
閭井與丘壟	久爲麋鹿鄉.
縣官築城市	萬戶置符章.
製船泊介浦	水陸軍威張.
流亡四鳩集	耕鑿安其常.
閔侯吾故人	視事年二強.
服膺恤民隱	慨然復義倉.
又從立廨宇	稍稍備廳堂.
賓客安寢息	吏民免飢荒.
由來守令識	只此無他方.

이 시의 제목은 「清河縣」으로 “영주 사람 閔寅이 이때 청하의 수령이 되어 읍성을 쌓고 의창을 설치했다.[榮州人閔寅時爲清河倅築邑城設義倉].”는 주석이 달려있다. 그런데 閔寅이 청하를 재건했던 일은 당시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권근 역시 「清河縣義倉廨舍記」에서 이때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어진 관원을 임용하여 백성을 맡기때 지난날의 가시덤불이 桑麻로 변하여 태평성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백성에 지극한 다행”⁵⁾이라며 민인의 치적을 칭송한 바 있다. 권근은 이 글의 작성시기를 ‘洪武 31년’(1398)라고 밝혔으니 기우자의 시도 그즈음인 47세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우자는 망국의 신하로 자처하며 평해의 바닷가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출사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시를 보면 자신의 벗이 이룬 치적을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칭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 사또는 나의 벗’이라는 표현에서 마치 자신의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기우자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몸은 비록 세상에서 물러나 있어도, 경륜을 펴고 싶다는 열정은 여전히 기우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에서도 또한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은행나무 안색이 생생히 피어나고
새로 지은 누대는 그 형세 편안하네.

5) 권근, 『陽村集』 卷13, 「清河縣義倉廨舍記」, “選用良吏, 以任民治, 使前日荊棘之藪, 化爲桑麻之區, 復泰之期, 適當于今, 斯民之幸至矣.”

부러워라, 그대 마음 활짝 트였으니
 바라건대 나의 뜻도 활달해지기를.
 구태의 정치는 이로부터 제거되니
 기뻐하는 소리 이로부터 전해지리.
 시를 지어 남김은 호사 취미 아니요
 뒤에 오는 현인에게 말하려 함일세.
 鴨脚生顏色 新臺面勢便.
 多君心豁若 幸我意愴然.
 弊政從茲祛 喜聲自此傳.
 題詩非好事 要與說來賢.

이 시의 제목은 「眞寶鴨脚臺」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압각대는 진보현 “객관 북쪽에 있다.[在客館北].”고 되어 있다. 창작 시기는 기우자가 호남과 영남 일대를 유람하였던 1410년(59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종실록』 16년(1416) 8월 10일 기사를 보면 군현의 이름을 바꾸는 논의가 보이는데, ‘甫城’을 옛 이름인 ‘眞寶’로 개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1416년 이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태종(재위 1400~1418)이 즉위한 이후 조선왕조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왕조에 대해 절의를 지킨 문인들도 대거 등용하였다. 기우자 또한 이즈음에 이르러서는 조선왕조에 대해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이 시는 앞의 시와 달리 구체적인 정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선정’을 예찬하고 있는데, 비록 ‘압각대’라는 구체적 누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시에는 조선왕조에 대한 기우자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구태의 정치’가 종식되고 선정의 전통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이 시에 담긴 전언이라 할 수 있다.

Ⅲ. 處의 지향—物我無間의 정신경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대부로서 處士의 본분은 학문을 닦고 심성을 도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성의 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성리학적 수양도 포함되었으나, 인간 세계

의 제한된 사유와 고정관념을 상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세계의 추구도 마땅히 포함된다. ‘騎牛’ 곧 소를 탄다는 행위 자체가 유교보다는 도교나 불교의 상징과 가까운 것인 바 ‘方外’에 대한 사유와 체험은 인간의 편협한 사고와 자기중심적 욕망 때문에 항상 대립과 투쟁이 그치지 않는 ‘方內’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우자의 시에서 ‘신선’이 주요한 제재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푸른 바다에 하얀 달, 소나무 위로 반쯤 떠올라
소뿔 두드리며⁶⁾ 돌아오는 길, 흥이 더욱 짙어라.
옴조림도 그만두고 월송정에 취해 누우니
단구의 신선들을 꿈에서 만나네.
滄溟白月半浮松 叩角歸來興轉濃.
吟罷亭中仍醉倒 丹丘仙侶夢相逢.

「平海越松亭」이란 제목으로 문집에 실려 있는 이 시는 기우자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 기우자가 울진 유배지에서 평해로 돌아와 지내던 무렵에 지은 시로 추정된다. 이 시는 칠언절구의 짧은 편폭이지만, 바닷가 정경에 대한 묘사로부터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자못 動的인 느낌이 들도록 짜여 있고, 독자들을 몰입시키는 힘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아 기우자의 시인으로서의 역량이 대단히 높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신선에 대한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표백한 것에서 유래하는 힘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왕조가 교체되는 대사건을 겪으며 기우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에도 이러한 신선 취향은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시는 ‘신선과의 만남’을 넘어 스스로 신선이 되고 싶다는 시적 화자의 바람이 표출되어 있다.

높은 봉우리가 돌 성곽을 머리에 이고 있어

6) ‘叩角’이란 표현은 춘추시대의 은자 甯戚이 부른 「飯牛歌」에 나오는데, 세상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전고로 쓰인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맥락과는 상관없이 소를 타는 흥취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고 보인다.

일월성신이 누대로 쏘아지네.
 바다 해는 붉게 파도를 흔들고
 구름 낀 봉우리는 푸르게 하늘에 꽂혀있네.
 옷을 떨쳐 속세의 먼지 털어내고
 환골탈태하고서 선계로 오르네.
 저녁때 긴 숲으로 내려가니
 시원하게 스치는 두 겨드랑이의 바람.
 高峯戴石堡 象緯逼樓中.
 海日紅搖浪 雲岑翠插空.
 振衣擺俗累 換骨上仙宮.
 晚向長林下 泠泠兩腋風.

「扶安聚遠樓」라는 제목으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조에 全文이 실렸던바 널리 애송되었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별을 보며 새벽에 취원루에 올라 붉은 일출을 감상하고서 종일 그곳에서 머물다가 저녁나절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계와도 같은 취원루에 있다 보니 마치 자신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나는 것 같은 羽化登仙의 흥취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선계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스스로 신선이 되는 상상을 하였으니 그만큼 기우자의 신선 취향이 깊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서늘한 촉각을 환기하는 尾聯의 마무리가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선 취향이 기우자만의 것은 아니어서 가까운 벗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서였다. 그 벗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이는 成石璘이다. 성석린은 기우자와 정치 노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우자와 직접 주고받은 작품을 풍성하게 남겼다.⁷⁾ 다음은 성석린의 「寄騎牛子」(『獨谷集』 卷下)이다.

이 몸의 온갖 병이 노년에 모여드니
 의원은 다만 말하길 하늘에나 빌어보라고.
 비를 무릅쓰고 도롱이 걸치고서 조랑말에 오르니

7) 성석린에 대해서는 이혜순, 「成石璘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2, 한국한시학회, 1996; 정혜순, 「獨谷成石璘의 생애와 현실인식」, 『석당논총』 4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09 참조.

행인 중 어느 누가 늙은 유선을 알아보리오.

一身百病集衰年 醫者唯言禱上天.

衝雨披蓑騎款段 路人誰識老儒仙.

성석린은 기우자에게 보낸 다른 시에서도 “산꼭대기에 올라 신선주 마시며, 한번 신선들의 통소 소리 들으리라.[會登絕頂飲霞液, 一聽羽人吹玉簫.]”⁸⁾라거나 “한 잔 새 차의 한 줄기 향기, 참으로 선옹이 한숨 잘 잔 때로다.[一甌新茗一香線, 正是仙翁睡足時.]”⁹⁾라는 표현도 보인다. 성석린과 기우자는 신선을 즐겨 제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용시는 단순히 신선에 대한 관습적 표현이 아니라 시인의 삶이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시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리하다. 화자는 몸에 병이 들었지만 의원으로부터 치료할 방도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에 말을 타고 기우자를 향해 가는데, 자신은 ‘유선’¹⁰⁾이므로 삶과 죽음에 담담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우자만은 알아주리라는 내용으로 읽힌다. 성석린과 기우자는 인간 세상의 행불행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의 여유를 신선 취향에서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우자가 처사로서의 자기 자신을 표상한 시로 다음 작품을 빼놓을 수 없다.

백암 서편 뗏집 문 닫아걸고서

바다는 넓고 하늘은 높아 저 멀리 바라보네.

동쪽 울타리에서 한번 취하려는데

국화꽃 두세 가지에 막 피었네.

白巖西畔掩茅茨 海闊天高騁望時.

欲向東籬謀一醉 黃花初發兩三枝.

여기의 ‘백암’은 기우자의 또 다른 호인 ‘백암거사’의 배경이 된 바로 그 지명이다. 起句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인간 세상과의 의도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8) 성석린, 『獨谷集』 卷下, 「遊燕屈洞 寄騎牛子(三首)」.

9) 성석린, 『獨谷集』 卷下, 「寄騎牛子」.

10) 고려시대의 한시에서 ‘유선’은 崔致遠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최치원과는 상관없이 나이 많은 신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고 보인다.

承句는 무한한 자연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이 점점 열어져 가는 모습을 간취할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자연과의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국화가 시인을 위해 바로 그 시점에 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시인은 국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그 발화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시인과 국화가 교감을 나누었다고 보는 시적 상상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성석린은 이와 같은 자연과의 교감에 있어서도 기우자와 상통하는 바가 깊었다. 다음은 성석린의 「근심을 풀다 2수. 기우도인께 보내다[遣悶二絕 寄呈騎牛道人]」(『獨谷集』 卷下)이다.

봄 지나 배꽃이 나무 가득 피고
 밤 깊어 달은 떠서 서성이네.
 적선은 호방한 흥으로 시 천 수를 지어내고
 독곡 늙은이는 그윽한 회포로 술 반 잔을 마시네.
 春盡梨花滿樹開 夜深猶得月徘徊.
 謫仙逸興詩千首 獨叟幽懷酒半杯.

어제는 개나리가 가지 하나 피더니
 복사꽃 요란스레 성근 울타리를 넘네.
 풍광이 사람을 꼬드길 뜻이 있는 것 아닐 터인데
 걷다가 몸을 굽혀 웃으면서 꽃잎을 줍네.
 昨日辛夷發一枝 小桃多事出疏籬.
 風光不有撩人意 行步歛危笑拾遺.

시상은 과연 제목에서 말한 대로 ‘근심을 풀어낼’ 법한 분위기이다. 제1수에서 ‘적선’은 기우자를 지칭하고 ‘독곡 늙은이’는 성석린이다. 그 가운데 ‘詩千首’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는데 기우자의 시 창작이 얼마나 왕성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어 문집의 失傳을 다시금 한탄하게 만들고 있다. 제2수는 성석린이 보여주는 꽃과의 교감이다. 그런데 그것을 시적 화자의 ‘짝사랑’으로 표현함으로써 꽃과의 교감을 더욱 운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려 내었다. 성석린의 창작 수완이 얼마나 빼어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우자는 자연과의 교감을 즐기는 한편으로 농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성석린의

「듣자니 기우자가 외 심기를 살피느라 친목을 깨뜨리고 또다시 산행의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 장난삼아 이언을 써서 드린다[聞騎牛子因督種蔗 以致乖和 再負山行之約 戲書俚言寄呈]」(『獨谷集』 卷上)라는 시에 기우자의 소탈한 풍모가 재미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지난날 (邵平은) 청문 밖에서 외를 재배하며
가난을 편안히 지켰으니 먼저 힘쓸 바를 알았음이라.
공은 오늘 또한 무슨 일로
일찍 일어나 늙은 농부를 흥내내나?
봄의 찬 기운이 사람을 감싸기 쉽고
게다가 음습한 안개도 무릅쓰니
병을 부르는 좋은 매개가 됨을
고명께선 유독 모르시는가.
행락은 응당 봄철에 즐겨야 하거늘
그옥한 기약에 짐짓 나아가지 않다니.
몽가가 글 읽을 줄 알고
몽가 모친이 술상을 잘 받들어
(식솔과) 대작함이 귀한 손님보다 나은지
문을 두드려도 대부분 만나지 못하네.
앵무새 소리 녹음 속에 있는데
꽃잎은 떨어져 마치 분홍 비 내리는 듯.

昔日青門蔗	固窮識先務.
公今亦何事	早起學老圃.
春寒好著人	況復冒陰霧.
引病是良媒	高明獨不悟.
行樂當及春	幽期故不赴.
蒙哥解讀書	蒙母善治具.
對酌勝佳賓	敲門多不遇.
鶯聲在綠陰	花落如紅雨.

‘邵平’은 중국 秦代에 東陵侯에 봉해졌던 인물로 진나라가 멸망하자 布衣가 되어 장안성 靑門 밖에서 외를 심어 생활했는데 그 외의 맛이 아주 좋아 ‘東陵瓜’라는

명칭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성석린은 前朝에 대한 의리를 지켜 한나라 조정에 출사하지 않은 소평의 처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우자에게 구태여 소평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농조로 힐난을 하고 있다. 농사에 너무 힘을 쓰면 건강을 상하게 된다, 이 좋은 시절에 벼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하며 기우자에게 타박을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우자의 담박한 삶을 존송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보인다.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고 셋째 아들 ‘몽가’ 등 가족들과 함께 꽃과 새와 어울려 지내던 기우자의 삶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내던 기우자의 모습은 다음 권근의 시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주도는 마음에 얽매임 없고
중암의 그림은 입신의 경지.
토끼털 붓끝에선 솜씨가 생동하고
소 등에는 시인이 실려 있네.
마을은 궁벽하여 첩첩의 산중이요
파도는 환하니 둥근 달 하나.
흰 갈매기와 더불어 서로 친하니
호탕한 물결에 누가 있어 순치하였나.

周道心無累	中庵畫入神.
兔毫生意匠	牛背戴詩人.
村僻山千疊	波明月一輪.
白鷗相與狎	浩蕩有誰馴.

제목이 「중암이 그린 이주도의 기우도[中庵所畫李周道騎牛圖]」이다. 중암은 일본의 승려인데 고려에 상당 기간 머물며 고려의 문인들과 폭넓은 교유를 하였던 인물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¹¹⁾ 그는 기우자가 소를 타고 바닷가를 노니는 모습도 그림으로 그렸고(그림은 전하지 않음) 권근은 그 그림에 위와 같은 제화시를 붙인 것이다.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연에 집약되어 있다. 갈매기가 가까이

11)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일본 인식과 문화 교류」, 『한국사상사학』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204~209면 참조.

어울린다는 것은 ‘鷗鷺忘機’¹²⁾의 고사를 연상케 하고, 마지막 구는 杜甫의 “흰 갈매기 호탕한 물결에 출몰하리니, 만리 밖에 누가 있어 순치시키랴.[白鷗沒浩蕩, 萬里誰能馴.]”(「奉贈韋左丞丈」)라는 구절을 축약한 것이다. 그런데 鷗鷺忘機 고사에서 갈매기는 객체로 등장하고, 두보 시에서 갈매기는 시적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림 속의 갈매기는 기우자와 어울리는 대상인 동시에 기우자 자신이기도 한 것이다. 주체와 객체가 넘나드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특이한 수법으로 표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기우자는 이처럼 자연 속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학자적 면모를 잃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편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성석린은 “서책들은 성현의 글이요, 국화와 소나무가 주인과 손님이네.[編簡聖賢, 菊松主客.]”(「呈騎牛盤石」)라 하고, 成石珉은 “만사는 그저 역겁 속에 지나므로, 마음을 모아 저술을 하네.[萬事空經劫, 一心是著書.]”(「次權可遠和李騎牛子」)라고 하여 ‘讀書者’로서 기우자의 면모를 증언하고 있다. 기우자가 학문에도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저술이 후대에 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점에서 처사로서 기우자의 삶은 魏晉시대 玄學的 隱逸의 풍조와는 그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우자는 성리학자로서 道體에 대한 사유를 통해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처한 때와 장소에 가장 적절한 처세의 길을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대 벗들의 견해가 참고가 된다.

행로의 어려움은 산에 있는 것 아니거늘
나그네들 어찌하여 비장한 얼굴을 하는가.
나의 준마에게 풀 먹이고 긴 채찍 떨쳐
하루에 만리길 편안히 간다네.
함지에 발 담그고 현포에서 바람 씌어
표연히 속세의 먼지는 멀리 벗어버리네.
왕교와 연문이 다투어 손짓하여
경장을 진설하고 내게 아끼지 않네.

12) 『列子』, 「黃帝」, “海上之人有好鷗鳥者, 每旦之海上, 從鷗鳥遊, 鷗鳥之至者百住而不止. 其父曰, 吾聞鷗鳥, 皆從汝遊, 汝取來, 吾玩之. 明日之海上, 鷗鳥舞而不下也.”

이때 머리 돌려 구절판 바라보니
 평탄하기만 하여 험난함 보이지 않네.
 막히고 통함은 예로부터 일정함이 없나니
 천도는 그윽하고 가물어 가면 다시 온다네.
 行路之難不在山 遊子胡爲悲壯顏.
 秣吾良驥振長策 一日萬里如等閑.
 濯足咸池風玄圃 飄然迴脫塵囂寰.
 王喬羨門爭招手 羅列瓊漿不我慳.
 此時回首九折坂 坦然不見險與艱.
 窮通自古無定在 天道幽玄往復還.

성석린의 「騎牛子賦」(『獨谷集』上) 두 번째 수로 온전히 기우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行路難’은 육조시대의 鮑照, 성당시대의 李白 등도 지은 바 있는 악부체로 대개 인생살이의 힘들음을 토로할 때 사용하는 노래 양식이다. 그런데 이 시의 주인공은 ‘행로난’을 부르며 얼굴을 찡그리는 보통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며 등장한다. 그는 해가 목욕을 한다는 ‘함지’며 곤륜산 꼭대기 신선들이 사는 ‘현포’를 자유로이 유람하고, 자신의 신발을 오리로 변화시켜 그 오리를 타고 조정에 나아갔다는 신선 ‘왕교’와 진시황이 찾았다는 신선 ‘연문자교’를 만나 신선들이 마신다는 ‘경장’도 함께 나눈다. 그 순간 험준하기 짝이 없다는 중국 사천성의 ‘구절판’을 바라보니 그곳의 험준함은 더이상 험준함이라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는 이른바 ‘遊仙詩’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두 구절로 인해 이 시는 일반적인 유선시와 구별된다. 시적 화자의 설명에 따르면 ‘窮’과 ‘通’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니 이는 결국 ‘천도’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궁’과 ‘통’이 단지 인생살이의 어려움과 쉬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出과 處’, ‘進과 退’, ‘利와 害’, ‘盛과 衰’ 등 인간의 삶과 역사와 관련된 보다 광범한 주제로 확장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천도’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목전의 상황에 얽매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다 긴 안목에서 ‘올바름’에 대해 숙고하며 역사적 무게를 느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는 일반 유선시에서 추구하는 ‘초월’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이러한 점은 金宗瑞(1382~1453)의 「白巖居士贊」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아 백암 선생이여
참으로 고려의 충신이로다.
치세를 걱정하여 이단을 물리치고 정학을 받들었으며
어지러운 조정에 처해 현사를 구하고 소인을 물리쳤네.
호한하도다, 그 문장이여
치밀하도다, 그 경륜이여.
공명에 대하여 어찌 뜻을 굽혀 영화를 바랬으랴
절의에 있어서 살신성인을 기필하지 않았네.
누가 기우자의 방랑하던 자취를 이해할 것인가?
실로 말고삐 잡고 간하였던 백이와 같은 반열이라.
바닷가에 소나무 있고
소나무 위에 달은 떠서
천추만세토록
그 정신을 상상해 볼 수 있으리.¹³⁾

猗歟白巖先生,	展也勝國蓋臣.
憂治世則闢異端而崇正學,	處亂朝則揀賢士而斥小人.
浩瀚乎其文章,	密勿乎其經綸.
於功名何曾屈志而冒榮,	在節義不必殺身而成仁.
誰知騎牛之浪跡,	實與叩馬而同倫.
海上有松,	松上有月,
千秋萬歲兮,	髣髴想見其精神.

여기서 작자는 기우자를 伯夷·叔齊에게 비기고 있지만, 전체 작품의 함의는 백이·숙제류의 靖節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이·숙제는 백대의 성현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체현하고 있는 덕목은 ‘節義’ 한 방면에 국한되어 있어 단조롭다면 단조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려지는 기우자의 면모는 그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다. 치세를 만나든 난세를 만나든 그에 적절하게 해야 할 일을 도모하고, 문장과 경륜도 뛰어나며, 공명

13) 이 작품은 『騎牛集』의 부록에 실려 있다. 김종서의 문집이 전하지 않기에 정말로 김종서의 작품인지 불확실한 점이 있다.

과 절의에 대해서도 또한 적절하게 처신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살신성인을 期必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인상적이다. 살신성인은 공자께서 ‘志士仁人’들만이 행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칭송하였지만(『論語』, 「衛靈公」), 그 자체가 志士仁인들의 절대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節義’의 실현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작자는 이처럼 복합적인 기우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저 소를 타고 다닌 奇行의 ‘浪跡’으로만 기억될까 염려하여 굳이 백이와 숙제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작품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기우자의 면모는 왜곡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작자는 기우자가 노닐었던 자연을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서 그곳에 기우자의 정신이 천추만세토록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로 대단히 인상적인 마무리를 하였다. 이로 인해 기우자의 정신은 어느 한 방면으로 단순하게 고정되지 않고 긴장감 있으면서도 역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성석연의 경우에도 다음 시에서 기우자를 형상화하며 위의 김종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월송정 곁으로
 해월이 이제 막 비추는데
 저 두건 차림에 술병을 차고
 소뿔 두드리며 소요하는 자는
 노자인가, 유옹자인가.
 중암은 그저 외면만 그렸을 뿐이니
 선생의 심사를 누가 있어 알 것인가.
 越松亭畔 海月初窺
 彼其幅巾壺酒 叩角而逍遙者
 是老子耶凝之耶. 中庵只得畫外面
 先生心事有誰知.

제목이 「題騎牛子月下騎牛圖」여서 앞서 언급한 중암의 ‘기우도’에 성석연도 제화를 남긴 것임을 알 수 있다. 劉凝之는 남조시대 송나라 때의 은사로서 높은 벼슬이 내려도 사양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 또한 소를 타고 노래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전하고 있어 그 모습을 그린 그림도 유명했던 듯하다. 그래서 <劉凝之騎牛圖>에 제화시를 붙인 후대의 시인도 여럿이 있다. 노자나 유응지는 은사를 상징하는 관습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중암의 그림은 이러한 전통적인 은사의 분위기를 충실히 표현했던 듯하다. 이에 성석연은 기우자의 삶이 그러한 관습적인 ‘은자’의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을 염려하여 마지막 구를 의문문으로 처리하여 여운을 담아내었다. 독자들에게 관습적 이해에 머무르지 말고 기우자의 높은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라는 축구를 담은 것이다.

IV. 孝의 바탕-出과 處를 아우르는 삶의 길

위에서는 출과 처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 논했지만 사실 때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공자는 ‘벼슬할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만하면 그만두었다(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孟子』, 「公孫丑上」)고 하였지만 과연 어떤 조건에서 벼슬할만한 것인지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李穡(1328~1396)은 출처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재목이 아닌데 벼슬 구함은 진정 미치광이 같고
벼슬자리 들어가 숨으려 함은 또한 사기꾼 같네.
미치광이는 아니요, 사기꾼도 아니어서 양심은 있기에
영친과 양친 중에 중하고 덜 중함을 정하기 어렵네.¹⁴⁾
非才求仕眞如狂 入仕欲隱還如詐.
非狂非詐一良心 榮親養親難上下.

‘榮親’은 立身揚名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니 ‘출사’를 말하고, ‘養親’은 昏定晨省하여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니 ‘은거’를 말한다. 여기서 이색은 대단히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자신이 미치광이처럼 맹목적으로 출사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니고 사기꾼처럼 출사하자마자 귀거래를 노래하지는 않지만 무엇

14) 李穡, 『牧隱詩藁』 卷3, 「歸來」.

을 중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결국 “출처는 본래 하늘의 뜻에 달린 것(出處由來在天命)”¹⁵⁾이니 천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는 결과가 나온 뒤에 나 하늘의 뜻을 헤아려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출처를 판단할 때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고, 평소의 수양을 통해 ‘하늘의 뜻’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大學衍義』의 저자인 남송의 陳德秀(1178~1235)는 “천지는 사람의 부모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스러우면 하늘을 섬기는 이치가 밝아지고, 어머니를 섬김에 효성스러우면 땅을 섬기는 이치가 면밀해진다.”¹⁶⁾고 말한 바 있다. 합리성을 추구하였던 성리학 체계에서 ‘효’는 초월적 존재인 ‘천’과 만나는 통로였던 것이니 천명을 헤아리기 위한 수양 가운데 효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여 수 남짓만 전하고 있는 기우자의 시 가운데 「次朴淸道廬墓韻」 2수(5언 8구, 5언 10구)와 「次李孝靖公慶壽韻」 5언 32운의 장편고시의 주제가 ‘孝’라는 점은 보다 의미를 부여해서 살필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효’는 고려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윤리 덕목이었지만 성리학이 심화되어간 고려후기 신진사대부들에게 효는 더 심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¹⁷⁾ 그러므로 이 시기 사대부들의 시문 창작에 있어 ‘효’가 집단적인 주제가 되었던 점은 문학사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본다.

기우자의 「次朴淸道廬墓韻」은 청도의 수령을 지낸朴晉이 선친을 위해 3년 여묘살이를 하며 지은 시에 차운한 작품인데, 이와 관련하여 권근은 「贈朴淸道廬墓詩序」(『陽村集』 卷20)라는 산문을 지었고, 성석린은 「占生字題前淸道朴晉廬墓詩卷」(『獨谷集』 卷上)이라는 시를 남겼다. 이외에도 많은 ‘縉紳’들이 ‘여묘시’에 대한 차운시를 지었다고 하니 가히 당대 문단의 큰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은 「次朴淸道廬墓韻」의 첫째 수이다.

15) 李穡, 『牧隱詩藁』 卷8, 「卽事」.

16) 陳德秀, 『大學衍義』 卷6, 「天理人倫之正」, “天地者, 人之父母. 故事父孝, 則事天之理明, 事母孝, 則事地之理察.”

17) 고려시대 효사상의 추이에 대해서는 김훈식, 「고려후기의 〈효행록〉 보급」, 『한국사연구』 73, 한국사연구회, 1991; 이상민, 「고려시대 여묘의 시행과 효 윤리 변천과정」, 『역사와실학』 55, 역사실학회, 2018 참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오래 산다는
성현의 말씀을 나는 보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화평하니
진실로 숨은 공덕 많았으리.
뜻을 고상히 하고 천도를 어기지도 않았는데
신명이 이같이 돕지 않아
쓸쓸히 자연의 조화를 타고 돌아가시니
죽고 삶을 뉘라서 응당 궁구하리오.
有德必有壽 吾觀聖賢句.
強康且樂易 固自幽潛富.
尙志更無違 神明能勿佑.
蕭然乘化歸 終始孰當究.

권근의 증언에 따르면 박진의 선친은 ‘학문을 통달하고도’ ‘스스로 은둔을 즐기면서, 佛神의 묘사스럽고 허황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斯道の 정당함을 독실히 믿어 나이 80에 이르도록 건강하여 병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이 더 오래 사시지 못하셨으니 죽고 사는 이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메시지이고, 아버지를 여읜 아들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가 이 시의 핵심 주제이다. 다음은 둘째 수이다.

가업을 계승한 청도 공이여
찾아온 나를 우연히 만나
한번 살아온 이야기를 펼치니
성대하도다, 집안의 전통.
또 문사들의 시를 꺼내어
주옥같은 문장으로 옷소매를 비추네.
무릎을 당겨 낭랑하게 읽으니
과연 소원을 이루었도다.
나 어떻게 한 마디 찬사의 말을 하나
글자를 쓰자니 에두르기만 할까 두렵네.
承家淸道公 偶得我來覩.
一展平生言 蔚乎有傳授.

又出摺紳詩	珠玉照衣袖.
促膝讀琅然	果得使願副.
余何贊一辭	寫字恐遷就.

여기서 ‘摺紳詩’란 박진의 여묘시에 창화한 여러 문인들의 시이다. 박진의 여묘살이는 당시 사대부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듯 여러 사람들이 차운시를 지어 보내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숨은 덕을 영원히 빛”¹⁸⁾내고자 하였던 박진의 ‘소원’에 부응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박진을 대하는 기우자의 태도는 한마디로 ‘恭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효의 실천으로 士風을 일으킨 박진의 행동에 대한 경의였을 것이다.

다음은 「次李孝靖公慶壽韻」의 후반부이다.

.....

생신은 한 해에 한 번이지만
 날마다 달마다 아름다운 잔 올리네.
 얼굴빛 말소리도 조심하니
 어찌 다만 음식 봉양뿐이라.
 효는 하늘과 땅을 꿰뚫기에
 어진 사람의 성품이요 버리어네.
 이 사람은 본분을 행하였기에
 좌우에서 아름답고 상서로운 일 만나네.
 나의 말은 졸렬할까 두려우니
 어찌 족히 밝게 드러내리오.
 시문을 수창하며 오늘 저녁 지새는데
 곰곰이 하늘의 뜻을 헤아려보네.

生辰歲一耳	日月進華觴.
視聽無形聲	豈徒備烹嘗.
惟孝貫天地	曰仁人性綱.
斯人素履往	左右逢嘉祥.
言之恐蕪拙	肯足發揮揚.

18) 권근, 「贈朴清道廬墓詩序」, “舅民乃欲分韻求諸縉紳之作, 以耀先君潛德於無窮.”

載賡盡今夕

眷眷念穹蒼.

이 시는 孝靖公 李貞幹(1360~1439)이 일흔 셋의 나이에 아흔 셋의 노모를 극진히 섬기고 있음을 나라에서 기념하여 几杖과 敎書를 내리자¹⁹⁾ 이를 축하하며 지은 것이다. 기우자 이외에도 卞季良, 申槩, 河演, 柳方善의 축하시도 전하고 있다.

인용문의 전반부는 이정간이 얼마나 효성스러웠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도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용한 부분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 구이다. ‘眷眷念穹蒼’이 어떤 의미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정간의 효행을 칭송하던 말과 어떤 고리로 연결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詩經』 「大雅」 ‘桑柔’편의 “靡有膂力, 以念穹蒼.[하늘이 재앙을 내린 뜻을 생각할 힘도 없네].” 구절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의 ‘穹蒼’은 일반적인 의미의 ‘하늘’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의 ‘惟孝貫天地’와 조응하여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기우자는 ‘천도’를 사유하며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천도라는 것이 사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천도 그 자체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이에 기우자에게 있어도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효’는 보다 가깝게 하늘을 느낄 수 있는 통로였을 것이다. 나를 낳게 한 부모의 근원을 찾아 올라간다면 그것은 결국 ‘하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효’는 그러한 점에서 기우자를 비롯한 신진사대부의 문학에서 심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기우자와 수창한 벗들의 시들 가운데 권근의 「이수찬의 근친 길을 전송하다[送李修撰觀省行]」(『陽村集』 卷2)나 鄭道傳의 <권근의 시에 차운하여 근친 가는 이한림을 전송하다[次權可遠 送李翰林歸觀]」(『三峯集』 卷2) 같은 작품들도 달리 보게 된다. 먼 길을 가는 이에게 시문을 지어주는 것은 한문학의 오랜 전통이지만, 기우자와 관련하여 다른 목적의 여행을 전송하는 시는 전하지 않고 유독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준 시가 전한다는 것은 역시 ‘효’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들 신진사대부들에게 효는 심중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던 것이며, 이는 ‘출’과 ‘처’보다 상위의 원칙이자 삶의 길이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세종실록』 1432년 4월 25일 기사 참조.

V. 맺음말

본고는 기우자가 지은 시와 그가 벗들과 주고받은 작품들을 통해 기우자의 삶과 그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기우자의 삶이 ‘혁명파’ 또는 ‘절의파’와 같은 기존의 틀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기우자는 덕성을 함양하며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이상적인 지식인의 길을 걸어갔다고 보았다. 그 길은 ‘출’과 ‘처’ 사이에서 고도의 긴장 속에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우자는 자신이 당한 상황에서 가장 적실한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였고, 그로써 절의를 지키면서도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기우자의 시에는 ‘출’과 ‘처’에 대한 지향이 모두 담겨있었다. 물론 비중으로 보면 ‘출’에 대한 지향을 담은 작품이 절대적으로 적지만 민생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처’를 지향한 작품들은 그 양상이 다양하고 풍성하였다. 그 가운데는 신선 세계를 지향하는 작품들도 있고, 자연과의 합일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런데 기우자의 삶과 예술 세계가 일반적인 유선시나 자연시와 구별되는 것은 그가 天道의 차원에서 자신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기우자의 작품 가운데 비중은 적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효’를 다룬 시들도 살펴보았다. 기우자에게 있어 효는 조상과의 만남을 통해 하늘과 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는 얼마 전하지 않는 기우자의 시문을 통해 기우자의 삶과 사상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점에서 비약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를 통해 기우자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여말선초 사대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19.10.31

심사일: 2019.11.29

게재확정일: 2019.12.09

참고문헌

- 李穡, 『牧隱藁』, 한국문집총간 3
成石璘, 『獨谷集』, 한국문집총간 6
李行, 『騎牛集』, 한국문집총간 7
權近, 『陽村集』, 한국문집총간 7
李雲成 編譯, 『騎牛先生文集』, 騎牛集國譯本刊行委員會
- 조운제, 『國文學史』, 동방문화사, 1949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時角』, 창비, 1984
이운성, 『이천 리의 역정과 천 년의 선적-여주이씨 사인당리종사』, 푸른사상, 2017
- 김남이, 「전환기의 관점에서 본여말선초 사대부의 세계관과 문학론의 전개」, 『고전과해석』 3,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
김도형, 「여말선초 李行의 정치활동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세계』 31, 효원사학회, 2007
김승룡, 「여말선초 시학사의 구도를 위하여-방법으로서의 典故」,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017
김정자, 「기우자 李行의 생애와 학풍」, 『역사와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김훈식, 「고려후기의 <효행록> 보급」, 『한국사연구』 73, 한국사연구회, 1991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일본 인식과 문화 교류」, 『한국사상사학』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류주희, 「조선초 비개국파 유신의 정치적 동향」,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유호진, 「高麗 後期 士大夫 漢詩에 나타난 精神志向에 대한 연구-崔濯·安軸·李齊賢의 詩文을 中心으로」,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이상민, 「고려시대 여묘의 시행과 효 윤리 변천과정」, 『역사와실학』 55, 역사실학회, 2018
이혜순, 「成石璘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2, 한국한시학회, 1996
정성식, 「기우자 李行의 경세사상」, 『동양문화연구』 23,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6
정혜순, 「獨谷 成石璘의 생애와 현실인식」, 『석당논총』 4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09
하정승, 「고려후기 한시에 나타난 사대부 문인들의 현실 참여의식과 내적 갈등-목은 이색을 중심으로 포은 도은 삼봉의 경우」, 『동방한문학』 68, 동방한문학회, 2016

A Study on Giwooja, Lee Haeng's Life and Literature through the Exchange of Poetry

Kim, Yong-tai

A contrast of "Royalists[節義派]" and "Revolutionists[革命派]", which is the basic composition when describing the literary history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is a very effective way. This also leads to the composition of "Sarim faction[士林派]" and "Gwangak faction[館閣派]" 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the weakness of this composition is that it makes "reclusion" and "official life" of scholar-official[士大夫] too disconnected. Thus, we miss the various aspects between "fidelity" and "revolution". This is the main reason why such an important figure as Giwooja, Lee Haeng has not been studied in earnest.

What is special about Giwooja is that he belonged to "new scholar-official[新進士大夫]", but acted according to his convictions, without being tied to specific faction. Giwooja took a path to reform collapsing Goryeo, on the one hand, to cooperate with the Revolutionists and to check them on the other. Despite he kept the fidelity to the Goryeo Dynasty by opposing the dynastic revolution, but he also entered into government service in the Joseon Dynasty when a large number of the Goryeo loyalists were appointed after the crowning of King Taejong. However, even after that, if it was time to withdraw from government position, he immediately withdrew. As a scholar-official, he can be said to have kept his life well while fulfilling his duty to the world.

Giwooja's life can be said to faithfully embody the condition of existence of the scholar-official, who must properly balance both "reclusive scholar[處士]" and "official[大夫]". In this paper, I examined Giwooja's poetry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ence[出]" and "hiding[處]".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is reclusive life and official life were complementary. To be more specific, his reclusive life helped him to enter government service, and on the contrary, his official life helped him to live in seclusio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writer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and a new understanding about the scholar-official's idea and

시문 수창을 통해 본 騎牛子 李行의 삶과 문학

literature, by founding a methodology for the integrated recognition of "emergence" and "hiding".

Key Words : Giwooja, Lee Haeng,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Royalists, Revolutionists, Seong Seok-rin

